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명설교 예배>

<2005년 6월 12일 주일예배>

하나되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본문: 마태복음 18장 19-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6월 12일 다시 주일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오늘은 6월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신입생들과 요즘 와서 말씀 듣고 수료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성의 역사를 뛰는 사람들, 세계 각 나라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초 말씀이 나갔습니다. 먼저 성서의 말씀을 보고서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며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되어 행하라’입니다. 각각 행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일하기 쉽고 하늘도 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각각 나누어서 하면 나는 두 번 해야 된다. 이쪽 한번 해주고, 또 다른 쪽 한번 해주고 두 번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나 돼서 행하면 나도 한번에 행하기 때문에 일이 배나 빨라진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되어 행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체가 일어나서 합동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송을 1절에서 3절까지 지휘하고, 두 번째는 새노래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이 찬양을 지휘하

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터지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상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새노래가 있지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직접 머리가 돼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리가 못되는 곳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가 돼서 한 곳은 다시 올려라. 내가 다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까. 관악대와 오케스트라 피아노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휘석으로 가서 지휘하겠습니다.

♪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말씀은 “이제 너희가 너희를 쫓던 자들을 쫓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가 돼서 행하라. 둘이 돼서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왔을지라도 그냥 사람들끼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돼서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도해야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나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와 같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면, 혼자 행하지 말고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 하나 돼서 행하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왔던 둘이 하나된다는 인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둘이 하나되는가? 다시 말하면 김씨는 김씨끼리 박씨는 박씨

끼리만 하나되지 말고, 박씨와 정씨도 하나되고 정씨와 고씨와도 하나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결혼하라. 여자도 결혼하고 남자도 결혼해서 하나되는 것같이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해야 성사가 된다. 둘이 해야 된다! 이제 너희가 때가 돼서 너희를 쫓던 자를 쫓아가게 되었으니 각자 쫓아가면 안 된다. 둘이 하나 돼서 행하라!”

토끼를 잡으러 둘이 갔습니다. 그런데 토끼 물이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먼저 한 시간 동안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지쳐서 못하겠으니 B 네가 쫓아가서 하라.”하면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는 뒤에서 쫓고 하나는 앞에서 쫓아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합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 둘이 한자리에서 의논해서 부르면 나도 함께 한다. 그러나 둘이 각각 하면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 역시 하나의 효과밖에 안나온다. 둘이 하나가 된 위에 나도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둘은 자기편끼리의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하나, 그리고 상대방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아벨끼리 하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끼리 하나되었을 때 주가 함께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1단계에서 보면 아벨끼리 둘이 하나된 것을 말하고, 근본적인 것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위치에서 각각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마디를 통해 전체에게 목시를 전해 줘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다르고 여러분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나에게 둘이 하나 돼서 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 돼서 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나 돼서 움직이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들릴락 말락 하지요? 그러나 이제 좀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에서 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듣고 금주에 어떤 일을 할 때 ‘아 둘이 하나 돼서 하라고 했으니가 둘이 하나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섭리의 사람들의 문제는 전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하나밖에 안 옵니다. 답이 하나 오면 그게 이치와 법칙과 원리이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 종교와 교파가 있어서 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종교와 교파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천 마디 물음에 하나님은 한마디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듣기 바랍니다.

각자 일을 하고, 여러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단상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너희가 둘이 하나되어 하면 나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두 사람이 같은 입장과 처세로 일체 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해서 모든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한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깨닫게 할 것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두 감람나무를 찾아서 하나되자.” 하는데 여러분은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찾습니까?

‘보다 내적 사람과 외적 사람이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편끼리 하나되는 것입니다.

가령 선생님이 일을 시켰습니다. 많은 일을 시켰는데 우측 사람도 일을 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잘 됩니다. 감람나무가 돼서 잘 합니다. 좌측 사람들에게도 선생님이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 돼서 일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되려면 선생님이 거진 명령을 하다시피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 돼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중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리라. 우측의 너희 생각은 너희 하나의 생각이지 좌측의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양측의 모든 생각이 모아진 것이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합니다.

우측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 생각이 이렇다면 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좌측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저리

로 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하나 되라. 둘이 하나 된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것은 우측과 좌측, 이 둘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측의 둘이 하나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지요?

“우측과 좌측이 하나되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답을 주면, 저 사람에게는 또 답을 달리 줘야 됩니다. 똑같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되었을 때의 답하고, 한 쪽 편에서만 와서 이야기했을 때의 답이 다릅니다. 양측이 하나 안되고 각각 와서 이야기하면 답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답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두 개이니 답이 두 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합해져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본의 말씀을 모르면 이야기를 계속 한 시간 두 시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돼서 행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쪽편의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쪽 편 한 사람과 저 쪽 편 한 사람, 이것을 합한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이 나 갑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원 근본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언제고 상대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쪽편의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편의 두 사람이 하나되는 것은 그 세계의 근본문제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체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대되는 두 사람이 하나 돼서 해야 됩니다.

컵을 들 때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가락 둘이 가야 들려집니다. 그러나 단상을 들 때는 한 손의 손가락 다섯을 다 써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반드시 두 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처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상을 들려면 우측과 좌측 손, 이 둘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둘이 하나 돼서 행해야 과거에 너희를 쫓던 자들을 쫓아가게 하리라!!

“너희들이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주가 그 가운데 함께 하리라.” 이런 이

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큰 것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끼리 끼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라. 가령 좌측에 있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우측에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제대로 안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끼리 의논하고 결정하면 아벨끼리의 일은 되지만 상대의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논해서 같이 하나 돼서 나한테 올리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여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다섯 명이 보고를 올려서 답을 계속 주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섯 명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편지를 주었어도 좌측에 있는 그 애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애들과 하나 돼서 나한테 보고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인간이 하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나? 인간이 하면 한쪽만 보고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면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근본문제가 해결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의 성서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하나 되라 하니까 우리끼리 하나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벨끼리 하나되는 것은 쉽습니다. 가인과 하나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죽 보면 하나가 안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뜻을 펴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상태에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안됐습니다. 그러므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쪼개져서 아벨은 아벨끼리 뜻을 펴고 가인은 가인끼리 죄의 형벌을 탕감받으며 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본문제가 해결이 잘 안됐던 것

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니까 가인 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벨을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로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두 번 돌리십니다. 동시성으로 역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동시성이라 했습니다. 역사도 한 겹줄이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한번 짹 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걸레로 짹 닦고 나면 근본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두 겹줄로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새롭게 말씀을 듣고 역사에 도전해서 들어온 사람이 2천명이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번 더 세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 교리말씀이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더 들으면 머리에 짹 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 통과식에 참석하려고 핵심만 툭툭 치며 들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도 20년동안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 행해보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무릎만 꿇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해봐야 되는데 행해보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일단 한번 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들으면 두 번째는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번 더 할 때 추진되지 못할 일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구약말씀 한 권 가지고 안되니까 신약 역사를 한번 더 돌렸습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이 하나되니까 시대의 뿌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한번 더 하셔서 성약 역사를 펴니까 거진 근본적인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구약 때에 말씀하고 신약 때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가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설교 말씀을 할 때 한번 더 세밀하게 해줄 때 ‘이것이구나.’ 하고 확실성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역사도 동시성으로 돌리는 것은 지난 것에서 못한 것을 다시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대와 때와 시기가 수준이 낮고 모두 어려서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수준이 높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역사를 돌려

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역사이지만 차원높은 역사로 가게 되고 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역사라면 두 번째 동시성적 역사는 차원을 높여서 열매를 거두는 역사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시대 전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크고, 한번 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를 빠르게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면 더 확실합니다.

아벨끼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가 돼서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역사나 여러분의 가정이니 모든 것을 보면 대개 하나가 안됩니다. 하나되는 사람끼리는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가 잘된다.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할게요. 힘들지만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어렵습니다. 그 애는 안됩니다. 개는 다른 입장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쪼개놓고 다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것입니다. “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도 같이 하면 됩니다. 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는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개가 강아지 새끼입니까, 개가 개새끼입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백짓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코 그 사람은 사고가 났 데가 나갔습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나는 땅을 파자고 하는데 개는 하늘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 사고는 재보면 백짓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 돼서 나한테 “둘이 하나 되었습니다.” 할 때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도 함께 하겠다. 보다 가인과 보다 아벨이 하나된 상태에서 의논이 되었다면 나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보고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고하고 자기편에서만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자기들 보

고만 하면 괜찮은데 상대방의 보고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좌측의 보고를 우측에서 했다 해도 나는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이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게만 답을 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과 좌측에 있는 사람이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 우측에 있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에 해당되는 답을 줘야 하고, 좌측에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면 좌측에 해당되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해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되라는 것은,

우리가 섬리의 일을 하다보면 “재는 안돼. 저기는 안돼. 저 사람들은 안돼. 관이 달라. 같이 하나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문제를 100% 해결하는 답을 다 주지 않고 상대와 더불어 갖고 있게 합니다. 50% 50%, 혹은 80% 20%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게 합니다. 80% 가지고 100%가 안되니까 20%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 돼서 할 때 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나에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할 때도 둘이 하나 돼서 편지하면 내가 답을 줄 때 간단한데, 이 쪽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보고 저 쪽에서 오는 편지를 각각 받아 보니까 편지가 열 장 올 것 스무 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 돼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다 빨리 답을 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읽고 이해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기 사연을 말할 때는 구체적인 사연을 써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할 때 여러분에 대한 것만 물으면 그 편지가 가슴이 안 와닿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나 지금 건강하게 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며 지낸다.” 하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의 마음이 확 풀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 쓰지 말고 1, 2, 3, 이렇게 간단하게 석 줄이나 너 줄에 자기 물을 것만 묻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다고 내가 ‘자기 물을 것만 물었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안부를 묻고 싶으면 안부로만 끝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편지에 나에 대한 안부만 다 써놓으면 내가 여러분의 편지를 받았어도 받으나 마나입니다. 본인에 대한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다.” 하며 육하원칙에 의해서 또박또박 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개인 편지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편지를 받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받는 것이고, 힘을 주려고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해 나아가야 됩니다. 거의 못 보는 편지는 못 봅니다. 나는 못 보면 못 본다 이야기하고 보면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편지를 못 봅니다. 봐도 편지의 답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것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편지만 보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동안 편지만 계속 본다고 해도 못 봅니다. 머리가 아파서도 못하고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중간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5월 29일에 한국에서 집회한 화면을 쳐다보며 여러분을 느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월 29일에 전도대회가 있었고, 구원의 말씀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화면이 떠서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보내주는 대로 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봅니다. 일단 봐야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하면 안됩니다. 내가 안 속는다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 혼자 세워놓았더니 지 혼자서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줘도 해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안 한다. 양쪽치 말을 꼭 물어보고 대답한다.”

그 대신 양쪽에서는 자기 입장에 좋은 대로만 보고하지 말고, ‘상대가 말하는 그것은 이런 것을 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써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읽다가 머리가 아프면 뒤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온 편지를 다 지웁니다. 그것을 내가 두 번 다시 보겠냐고 하면서 지웁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섭리역사를 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대로 뜻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항상 구하고, 모임하고, 같이 있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하겠다. 같이 동참하겠다. 그러나 혼자 하는 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큰 효력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사람이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토끼를 쫓아도 하나는 쫓아가고 하나는 앞에서 토끼 울가미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엮힐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모든 것이 빨리 잘 될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섭리역사를 펴나가자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 의논하라! 서로 상의하라! 그 동안 서로 의논하면 같은 편끼리만 의논을 했습니다.

“야 그렇지 않냐?”

“야 그렇지 않냐? 맞지?”

“채들과는 안 통하니까 우리끼리 해야 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 쪽의 약점을 알고서 막 이야기해 버리고 내게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답을 주고, 또 다른 상대방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계속 답을 줬는데도 문제는 문제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나에게 보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중개 함께 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서 능선을 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산의 능선을 타면서 양쪽치를 봐야 됩니다. 꼭 보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네 편 능선을 타고 있으면 안됩니다. 두 개를 합한 능선을 타라는 것입니다. 자기편의 능선만 타면 안됩니다. 두 편을 합해놓은 능선을 타면서 양쪽치를 보고서 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항상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지.’ 하며 나에게 “내가 못 푸니까 선생님께 올립니다. 좀 풀어주세요.” 하고 문제를 올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쪽에 편지를 해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니까 그런 답을 주는 것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에게 편지를 올린 애에게,

“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 격이 된 것 같다. 그런 일이 없으면 다 행이지 않느냐.”

“다행이에요.”

“그러면 니가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풀도록 하라.”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아 그렇지 않대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두 번이나 편지를 하다보면 한 달씩 갑니다. 둘이 한 자리에서 같이 편지를 해서 내가 한번에 하게 되면 금방 받지 않냐는 것입니다. 각각 하니까 보름씩 늦어지고 한 달씩 늦어지는데, 늦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내 생각만 하나님께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께 올리면 안됩니다.

“애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냐?”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니 생각도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이들 생각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에게 언제쯤 하면 좋은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쯤 하면 좋다 하고, 나는 언제쯤 하면 좋은데 이것이 서로 조절되어 결정되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때 하도록 하자.” 했습니다.

한국에서 5월 29일에 집회를 하기 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15일에 했으면 좋겠다. 14일에 대학부 전도대회이니까.” 그랬는데 “안되겠다. 둘 다 하지 말고 20일 경에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물어보니까 차가 빨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가 안 되는구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러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여유있게 하려면 보름동안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차가 되기는 되는데 너무 비쌉니다. 지금이 한창 관광버스의 한철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면 좋으냐?”

“말경에 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모두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준비했는데 여자 애인이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자!” 하니까 “지금 가면 나는 못 간다.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됐고, 옷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가냐?” “후닥닥 입으면 된다.” 그래서 후닥닥 입었습니다. 입고서 중간쯤 가다가 여자가 “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안 가지고 왔냐?” “여권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안되고 혼자 생각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도 이렇게 하자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면 “나도 너희 중에 같이 하겠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에서 오다(order)가 떨어졌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지, 무조건 “믿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 타고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 심판 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오다가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다가 안 떨어졌는데 우리만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지 않았습니까. 2천년이 되었는데도 육신이 부활되지 않고, 육신은 고사하고 영혼까지도 부활이 안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생활의 부활로 육적인 부활을 시키고 영적으로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역사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2000년대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육신이 직접 오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안 떨어졌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믿나요?”

“저들은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이다. 내가 한 말과 다르다.”

“분명히 육신이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팔 불고 온다고 했잖

아요.”

“그게 무슨 나팔이냐? 말씀 나팔이다.”

“공중에 재림하여 온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사는 데가 공중이잖아.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가면 되잖아.”

“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믿고 있네요.”

“글세 말이다. 그게 문제다.”

서로 의논이 안됐기 때문에 기독교만 자기네가 생각하는 대로 2000년대에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안 오니까 뺨 뺏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외친 대로 안 왔는데도 참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잘 빠져나갔습니다. 따르는 사람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늘과 의논해서 됐으면 그 때는 마음을 놓고 있지 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을 놓으면 안됩니다.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냐? 이렇게 하겠냐?” 하고서 확실히 됐으면 모르지만 우리들끼리 말만 듣고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들을 처리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모임이 있을 것인데 지도자들만 의논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다 의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합니다. 나에게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와 안 맞으면 안됩니다.

옛날에 공산주의가 지도자만 중심했습니다. 지도자만 결정하면 밑의 백성들은 100% 따라 가야 했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자유의 세계입니다. 나는 자유 없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의논 하고 이야기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중앙에서 일하는 이사진들은 거기서만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거기서 결정하고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너희들의 의견이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냐?” “네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렇게 하고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사진 말과 똑같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지방의 교역자와 의논하고, 교역자들은 모든 교인들과 의논을 하든지 그 따르는 사람과 의논을 해서 모두 하나가 된다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나라들이 뭘 할 때 잘 안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안됩니다. 자칭 민주주의 식으로 가는 것이지, 실상은 민주주의가 되려면 전체가 하나 돼서 우(右) 하고 좌(左) 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늘 앞에 물어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선생님이 뭘 물어보며 “이렇게 하고 싶냐?” 하면 다 “네 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말을 하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 입장과 처세를 분명히 하고 하면 더 이상적입니다.

그런 것을 하늘 앞에 의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안됐는데 개체된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이 일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좋게만 보고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백성들이 나쁜 것을 올리면 결제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 버려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저울에도 달아보고 자로도 재어보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인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너무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길이는 1미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것을 갈라봤더니 속에 다른 것이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초근초근 차근차근 의논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교역자들도 자기 의향만 해서 보내지 마십시오. 밑의 사람의 의향도 들

어짜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애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랬는데 만약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느 때는 선생님이 교역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같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가서 목회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 그 동안 목회자가 없어서 몰랐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내가 해왔는데 모르긴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맡길까 말까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없이 결정해서 올리면 뒤에서 계속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가 또 올라옵니다. 그 보고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보고를 보면 이렇고, 저 보고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는 곤고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쪽 보고를 다 완벽하게 들어보고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보고를 하면서 급하다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해야 일이 잘되고, 역사적인 일이 잘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공 비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주도 함께 하시고, 모두다 하나 돼서 일이 잘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일에 참석하는 것은 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한 다음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의견이냐?”

“아닙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보고하지 않고 너 혼자 보고 하냐? 니가 어떻게 말했길래 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 좀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말했길래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본인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세밀하게 해야됩니다. 또 파악해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하

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쪽 말을 듣고 해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한 집의 말만 듣고 물건을 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 보고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물건을 사라! 한 집만 보고서 물건을 사면 안됩니다. 그 집에서 “이 물건이 다 품종 댔습니다.” 해서 샀는데 옆의 집에 가보니까 품년이었습니다. 자기 집만 과일이 다 떨어지고 그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 “품종댔다. 없다.” 했는데 딴 집에 가니까 다시 한 트럭씩 와서 과일이 한 트럭씩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만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아버지 말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 막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달랐습니다.

“야 그것이 아니다. 옛날에 이야기한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이야기를 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딴 것 없어. 또 이야기를 해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다.”

“아 그런 약속이 있었구나. 이야기 안 하기로 했구나.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했구먼. 어머니가 말을 엮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하셔야지요.”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는 “아니 내가 그것을 목적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말을 치고 나갈 수밖에 더 있었겠냐.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 그 말을 안 하면 말이 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인데,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인데, 교역자의 말을 들어보면 저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란 말입니까. 아, 나는 머리 아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답을 다 안 줘 버립니다. 그러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의논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되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하나 되어라, 너희는! 그러면 나는 책임이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까지 해주겠습니다. 서운합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되어라. 항상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희망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함께 했는데 한 쪽씩 한쪽씩 함께 해서 일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된 상태에서, 난자와 정자가 하나된 상태에서 태 보자기에 가니까 임신이 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의 근본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 하리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함께 하리라. 아벨끼리만 하나되는 것 말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면 그러하리라. 솔직히 말해서 아벨끼리도 편이 있지 않느냐. 잘 통하는 사람끼리 편이 있지 않느냐. 너희와 잘 통하지 않는 그들과 하나 되었을 때, 그런 두 사람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해서 결재 할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의 목시를 깨닫고 한 주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 해서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 하겠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의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겹줄이 강하니 너희가 반드시 두 겹줄로 하도록 하라. 그래야 잘되리라! 일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잘 듣도록 하라. 너희가 겹줄로 하도록 하라. 그래야 잘되리라. 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겹줄로 하되 통하는 사람

끼리 겹줄이 아니고, 보다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곱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 돼서 하라. 그것이 겹줄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오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아왔습니다. 말씀하며 가르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새로 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렀으니 이들이 인생 길을 결정하고 영원히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인생문제에 곤고함을 겪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돼서 하도록 하라! 마음만 내가 결재를 할 수 없다. 또 육신만 따로 결재 할 수 없다. 마음과 육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느냐? 결심하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느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새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영과 육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요즘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달은 자에게 힘있게 나무 뿌리가 흘러 뻗어가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꽃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이들이 지혜롭게 전도하고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꼭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농사를 지을 때 묘판, 묘목만 계속 기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묘목에 아무리 거름을 해도 크지를 못하니 하나씩 옮겨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온 민족, 세계 각 나라가 하늘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늘과 함께 해서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인생의 곤고를 겪는 자, 참으로 앞이 캄캄한 사람,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있다.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된다. 어떤 것은 과감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 어떤 것은 기도를 하라. 어떤 것은 너희가 하나 돼서 하도록 하라. 그래야 되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돼서 잡아당겨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크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 사랑하심이 온 세계 각 나라에 함께 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사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해서 역사가 펴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옳은 데로 전도되어 역사가 펴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평강과 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면의 말씀>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을 관리하고, 새로 통과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별도로 모임도 갖고 계속 관리해 주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